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라이프니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양희영*,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leat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the Thought of G.W.Leifniz and G.Deleuze-

Hee-Young Yang* · Sook-Hi Y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10. 18 투고)

ABSTRACT

Thought of postmodernism accepted between variety and differentiation is characterized by variability and indeterminacy aimed at continuous change. For that reason, modern fashion has been grouping a lot of manners for creation of the various different form and structure.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lding system, which expands efficiency of the spatial utility and shows various forms. Folding system expressed in modern fashion could be divided the pleats, which were made of the folding, and the drapeeries, which were made of bending. This selects the pleats as a enlarged concept of the folding system that contains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Pleats did not mean two dimensional folding surfaces, but three dimensional spatial structures. For understanding of the folding system as a three dimensional spatial structure, this is utilized with the thought of the 'le pli' of G.W.Leifniz and G.Deleuze.

The pleat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can subdivided into 4 sets; crinkle system, origami system, fractal pleats by folding system, and drapery system.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leats are analyzed with enlargement, fluidity, deconstruction, irregularity.

Key words: crinkle system(크링클 방식), origami system(오리자미 방식), fractal pleats(프랙탈적 주름) folding system(접기방식), drapery(드레이퍼리), enlargement(확장), fluidity(유동), deconstruction(탈구조), irregularity(불규칙)

I. 서론

다양성과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는 지속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대의 패션 또한 차이를 긍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창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상이한 영역과의 이질적인 결합은 패션의 공간과 기능을 확장시키고 더불어 새로운 구성방식에 대한 탐색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공간을 가변적 구조로 변화시킨 다변화 패션이나 다목적 패션을 통해 두드러져 나타났으며 변화가능한 건축적 구조를 패션에 도입하여 패션의 공간과 기능을 확장시키거나 전환시킨 패션 공간의 건축화 현상 또한 고찰되었다.¹⁾

그러나 패션의 새로운 구조와 형태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타 영역과의 결합을 통한 공간 구조의 탐구 이전에 패션 자체의 공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연구자는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주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리스 로마 시대나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복식의 드레이퍼리(drapery)의 조형성과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패션에 나타난 주름에 관한 연구²⁾로 국한되었었기 때문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주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패션에서 나타나는 주름은 접힘에 의해 표면이 꺾이고 굴절되어지는 주름과 꺾임 없이 구부러짐에 의해 형성되는 주름으로 양분될 수 있지만 연구자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주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접힘 면으로서의 2차원적인 '주름'이 아닌 공간적 구조의 접힘과 펼침에 의한 3차원적인 '주름'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는 패션과 철학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패션

잡지, 패션 서적 등에서 선별한 사진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로 이루어졌다. 현대 패션에 관한 주름의 연구에 앞서 3차원적 공간에서의 주름의 의미와 접힘(folding)과 펼침(unfolding)을 통해 형성되는 다차원적인 공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의 주름(le pli)이론과, 변화와 차이를 생성하는 주름의 창조적 기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카오스적 무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들뢰즈(Gilles Deleuze)의 주름이론을 선행연구로서 고찰하였다.

연구 범위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기이후부터 패션에서 다양한 구성방식에 의한 다층적 형태의 주름이 나타나고 주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고찰을 위해 본 논문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라이프니츠와 들뢰즈의 주름 이론을 통해 다층 계열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창조하는 주름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한다.

2) 1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주름을 구성 기법에 따라-크링클(crinkle)방식, 오리가미(origami) 방식, 접기(folding) 방식에 의한 프랙탈(fractal)적 주름, 드레이퍼리(drapery) 방식-분류하여 살펴본다.

3) 주름 기법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확장성, 유동성, 탈구조성, 불규칙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II. 라이프니츠와 들뢰즈의 주름 이론

1. 라이프니츠(G.W.Leifniz)의 주름(le pli)이론

라이프니츠는 세계가 결코 양적인 규정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질적인 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양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렇게 질적으로 다양한 무수한 존재들을 기하학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라이프니츠의 사유는 다(多)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아니며, 다(多)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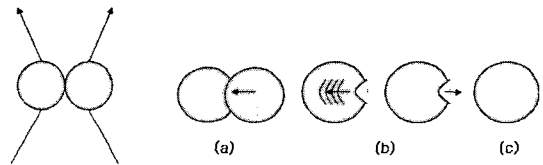
하나에 특권을 부여해 나머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하나이자 여럿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A와 B를 C로 통합하여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A를 C1으로 B를 C2로 통합하여 근원적으로는 하나인 C이지만 부분적으로는 C1, C2, C3로 분리되어 각각의 특징을 변별시켜주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하나의 실체가 분할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였다. 한 개체가 살아있을 때 그의 몸은 단순한 물질-공간이 아닌 그 자체로 '질적인 다'이며 활동하는 존재인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다. 그는 통일체, 단일성을 의미하는 '모나드(monad)'를 이용해 위의 사유를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물도 거기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창이 존재하지 않는 배제되고 고립된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나드를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즉, 모나드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른 형태로 분할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나드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현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³⁾ 이러한 모나드간의 소통은 이들 사이의 무한하게 복수화 된 관계를 통해 나타나며 따라서 모나드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니츠의 공간에는 진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진공은 사물이 없는 공간으로 사물로부터 공간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그의 공간론에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이러한 진공의 부정은 우주가 꼭 차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그의 '주름(le pli)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름 이론은 '탄성'의 문제에서 탄생하였는데 원래 탄성은 원자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동이다. 원자론은 진공 상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원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운동의 발생은 이러한 원자들의 충돌로 발생된다. 원자들의 접촉은 힘을 생성하고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자들의 접촉과 탄성에 의한 튕겨나감 등이 역학의 주관심사였다. 결국, 원자는 그들 사이의 다양한 접촉에 의해 방향과 속력이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순간적인 변화를 인정

하지 않았다. 라이프니츠는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라고 하여 연속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는데, 모든 물체는 그 안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도 또 다른 부분을 지니고 있는 무한한 '중첩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프렉탈 구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물체의 탄성 운동은 부분에서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힘이 전달되어 연속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운동을 '점진적 운동'이라 하였으며, 이때의 물체는 미시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딱딱한 고체가 아닌 유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 물체의 이러한 중첩 구조를 통해 라이프니츠는 모든 운동은 점진적인, 순차적인, 그리고 연속적인 운동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연속성의 원리는 라이프니츠 사유의 중핵에 위치한다.⁴⁾



원자론에서의 탄성 라이프니츠에 의한 탄성 운동
 <그림 1> 원자론과 라이프니츠의 탄성운동 비교⁵⁾

주름 이론은 모든 존재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다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사물은 모두 주름 잡혀있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어떤 물체도 탄성을 가지지 않을 만큼 작을 수는 없다'고 하여 중첩 구조가 없는 존재란 없기 때문에 탄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 아니다'라고 하여 전체가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개체임을 주장하였다.

2. 들뢰즈(G.Deleuze)의 주름(fold)이론

들뢰즈는 서구 과학과 형이상학이 지각하는 것보다는 이성만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담론을 고급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환원적 태도, 즉 이상화, 합리화, 동일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는 결

코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현존의 장을 중요하게 인지하였으며,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무한히 많은 다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그의 생각은 주름으로 대변되는데 이것은 접힘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는 행위에 의해 하나는 둘로 분할되며 펼치는 행위에 의해 둘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접힘은 연속의 계기와 불연속의 계기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인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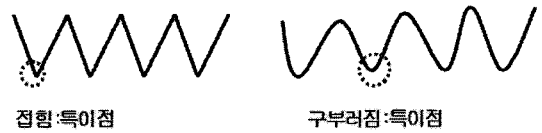
들뢰즈의 주름 이론은 그의 사건개념에서 기인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대상들 간의 이질적이고 순간적인 상호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야기시키는 노마드적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들뢰즈의 사건은 명사나 형용사와 관련된 정적인 사유가 아니라 동사와 관련된 동적인 사유이다. 사건은 '됨'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목적 삶을 야기한다. '됨'은 단순한 사물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사건의 계열화를 통해 다양하게 연결되어진다.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비물체적인 사건을 물체적인 것들의 '표면효과'로 이해하였다. 즉 실재하는 것은 물체이며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얼굴의 표정처럼 발생하는 사건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효과'라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건은 물질들의 표면효과이며 이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은 언어를 기능하게 만들며 사건의 본질에는 순수한 표면효과인 비물체성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사건의 사유는 생성과 운동, 변화를 사유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건이 형성하는 구조와 코드는 차갑고 정적인 구조가 아닌 생동감 있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생성하는 역동적인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건과 표면효과들은 물리적인 대상에서 비롯되지만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 표현(expression)의 관계를 형성한다.⁷⁾

들뢰즈는 스토아 학파의 사건과 표면효과를 인용하여 표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하는 표현은 상반되는 두 측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펼치거나 전개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감싸거나 함축한다는 의미이다. 즉 쉽게 설명

하면 전자는 밖(ex-)으로 주름(pli)을 펼친다는 것이고, 후자는 안(in-)으로 주름을 접는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표현은 하나의 대상이 가진 다양한 속성 중 하나의 실체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자(多者)속에서의 일자(一者)의 현시(펼침)이며 다른 일자들을 내재(감쌈)하고 있다. 따라서 들뢰즈는 표현은 펼침과 감쌈이라는 양방향의 운동을 모순 없이 동시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리라고 주장하였다.⁹⁾

주름은 '접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접힌 면들을 살펴보면 두개이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이고, 이때 접힘은 연속의 계기와 불연속의 계기를 동시에 포함하며 이러한 구조가 접힘의 구조이다. <그림 2>는 안과 밖, 연속과 불연속을 동시에 드러내는 주름을 보여준다. 각각의 구부러지고 접히는 부분이 불연속적인 계기를 형성하는 장(場)이다.



<그림 2> 주름의 특이점

접힘, 구부러짐 등은 사물의 특이점을 나타내며 특이점이 많을수록 사물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물이 복잡할수록 접히는 특이점이 많으며 더 많이 접히게 되어 주름이 많아지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물들의 차이는 그들이 잠재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주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특이점들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기인한다. 주름 이론에서 펼친다는 것은 표현된다는 것으로 잠재적인 특이점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들뢰즈는 그의 주름 이론에서 차용된 폴드(fold) 개념을 통해 규범적이고 데카르트적인 공간을 일탈하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새로운 유동적 관계성을 강조한다. 폴딩(folding)기법은 다수의 차이를 전체 내에서 변형하고 그들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데 이 기법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 1) 위상기하학적으로 변형된 고무처럼 잡아당기

고 접고 펴는 것의 반복을 통해 역동성과 운동, 탄성을 공간 내에 실현시키고 있다. 이것은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자유로운 변화를 통해 공간적 위계성을 전복시키고 복잡화, 가변화된 전체 구조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2) 연속성과 이질적인 차이를 통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변형(smooth transformation)이 강조되는 조형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자유로운 이질적 요소들을 연속적인 장으로 혼합하면서 전체적 특성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전체로서의 부드러운 혼합(smooth mixture)¹⁰⁾은 형태의 연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의미하고, 동일한 특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주름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물을 구성하는 흐름의 선들은 어느 부분에도 종속되지 아니하며 단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비위계성의 논리가 적용된다.¹¹⁾ 들뢰즈는 다양한 차이를 생성하는 주름 이론을 통해 무한한 잠재성과 역동성, 다양성을 함축하는 무의미와 역설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라이프니츠의 주름과 들뢰즈의 주름 이론을 간단하게 도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들뢰즈의 주름 이론은 라이프니츠의 주름 이론을 확대, 발전시킨 포괄적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의복 구성 시 형성되는 공간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의복이 창조하는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직물에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주름을 형성시키거나 접고 펼치는 방식을 통해 형성된 기하학적인 입체적 주름은 외부 환경으로 의복 공간을 확장시키고 의복구성방식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름은 면을 모으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을 나누기도 하며 하나의 공간은 주름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다수를 전제로 하는 주름은 시각 상 동일 형태이든지 다른 형태이든지간에 반복되며 움직임에 의해 면과 공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주름은 단순한 표면의 접은 자국이 아니며, 접은 선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다른 면을 구성하지만, 유연하고 연속적인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도록 의도되어졌다. 따라서 주름은 복잡한 공간의 정렬을 제시하며 주름에 의해 형성된 공간은 연속적 공간으로 인지되어진다. 접혀진 면은 구조적으로 짜여진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보호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건축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을 형태와 구

<표 1> 라이프니츠와 들뢰즈의 주름 이론 비교

	라이프니츠의 주름	들뢰즈의 주름
기본사유	모나드	노마드
원리	연속성의 원리, 탄성의 원리	부드러운 변형, 반복의 원리
구조	무한한 중첩 구조	위상기하학적인 가변 구조
특징	하나의 실체로서 질적인 다진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연속적인 발전과 변화 하나의 특성으로서의 환원이 불가능 리좀적 결합
의미	무한성, 연속성	역동성, 가변성, 반복성, 하이퍼링크성, 무한성, 연속성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종류

의복을 구성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은 직조된 직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물의 짜임과 실

성방식에 따라 1.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 2.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 3.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 4. 드레이퍼리 방식에 의한 주름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1.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

크링클은 직물 표면에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구김이나 주름 등의 입체적인 표면효과를 창조하고 있는데,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주름의 형태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에 웰빙(well-being)과 내추럴리즘(naturalism)의 패션 트렌드에 의해 조명되고 있는 주름 구성방식이다.

이것은 단조로운 직물 표면에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직물 가공을 통해 나타나는데, 직물에 수산화나트륨을 줄이나 점 문양으로 날염하여 약품 처리된 부분은 수축되고 미처리된 부분은 주름의 형태로 남아 단조로운 직물을 오목볼록의 입체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플리세(plissé) 가공과, 제직단계에서 위사공급의 변화로 자연스러운 주름을 형성하거나 정상적인 실을 자루에 구겨놓은 상태로 물리적 구김을 가한 후 축소, 감량, 염색, 후처리 가공 등을 하는 크리즈(crease) 가공에 의해 제작되어진다.¹²⁾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미세한 주름에서 발전하여 풀어헤친 듯한 거칠고 불규칙한 주름, 나무껍질에서 보이는 심하게 구겨진 듯한 둔탁한 주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계가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주름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엉성하고 불규칙적인, 꾸깃꾸깃하고 흠이나 돌출, 오목볼록에 의해 만들어진 입체적 표면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느낌을 제공한다. 특히 부드럽고 광택 있는 얇은 직물을 이용한 크링클 주름은 이러한 효과를 배가시켜준다.

신체의 실루엣에 따라 자연스럽게 굴곡진 주름은 움직임에 의한 릴리프 효과(relief effect)¹³⁾로 리듬감과 함께 의복의 표면적을 외부로 확장시키며, 주름의 굴절과 확장 등은 직물 표면의 광택에 의해 보다 두드러지고 밀집된 주름이 형성하는 역동적인 선의 흐름을 강조한다. 얇은 면이나 거즈, 살짝 비치는 시폰, 물 흐르듯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실크 등으로 만들어진 크링클 주름은 빛의 각도에 따라 상이한 색채를 반사하며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보스(bobos)적인 감성에 빈티지 로맨틱시

즘이 합쳐진 현대 패션에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을 주요 테마로 폭넓게 활동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이러한 주름을 이용하여 패션 공간을 조형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건축에서 보여지는 리드미컬하고 고전적인 기둥의 힘을 의복에 표현하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유동적으로 작용하는 플리츠(pleats)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신체의 표면을 주름에 의한 일정한 형식으로 패턴화한 것으로, 넓은 공간을 주름으로 접어 넣어 신체 면에 착용시킴으로써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로서의 의복 공간을 다시 내부와 외부로 양분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는 수직방향으로 접히면서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주름으로써 가능하며, 신체를 속박하는 의복으로부터 신체를 해방시키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동시에 실용적인 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의복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정방형과 기하학적 형태로 재단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저지(polyester jersey)가 주름을 이용하는 의복에 가장 이상적임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플리츠 플리츠(Pleats Pleats)'라는 라인을 런칭하여 의복 구성에 있어서의 주름의 효용성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입증하였다.¹⁴⁾

〈사진 1〉은 주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세이 미야케의 2001년도 컬렉션이다. 돔(dome) 형태의 헴 라인을 형성하는 상의는 리드미컬한 주름으로 인헤계단의 층계 구조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며, 하의는 가는 주름이 모여 다시 보다 굵은 플레어 주름을 형성하는 이중의 주름으로 유연하게 드레이프되는 스커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파동하는 물결의 흐름을 보여주며 외부공간으로 확대되어진다.

〈사진 2〉는 2005년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의 작품으로, 이것은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 플리츠와 동일한 방식의 주름을 이용하여 신체의 모든 구성적 디테일을 삭제하였다. 신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플리츠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실루



〈사진 1〉 Issey Miyake,
2001 S/S
<http://firstview.com>



〈사진 2〉 Alexander MacQueen,
2005 F/W
<http://firstview.com>



〈사진 3〉 Junya Watanabe
2000, S/S
Techno Fashion. p. 69.



〈사진 4〉 Yosiki Hishinuma,
2000, S/S
<http://firstview.com>

옛와 동일한 실루엣을 형성하며, 어깨에서 가슴 중심부위로 주름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폴딩을 첨가하여 어깨를 감싸고 허리로 내려오는 유연한 라인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주름의 펼침에 의해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소매부분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구성방식을 일탈한 탈구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크링클 방식에 의해 조밀하게 형성되어진 주름은 주름방향으로 운동감을 형성하고 반대방향으로 수축과 팽창을 지속하는 탄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각적 역동성과 실제 공간의 운동성이 일치하지 않는 역설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의복 공간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감각이 공존하는 공감각적 공간으로 확대되어진다.

2.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

오리가미는 에도시대 이후 유행해 온 정교한 종이접기 공예를 가리킨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종이접기 방식은 20세기에 들어와 이루어진 것으로, 오리가미란 명칭도 이때에 형성되었다. 이것은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는 폴딩 방식에 의해 규칙적이지만 복잡한 공간의 정렬을 제시하였다.¹⁵⁾ 또한 접어서 만들어진 주름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키며 동시에 자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빈 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상호 관입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이 접기 방식으로 구성된 공간은 폴딩에 의해 접혀지지만 펼쳐졌을 때에는 하나의 면을 형성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오리가미 방식은 라이프니츠가 말한 '특이점'이나 '특이면'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른 공간적 지각을 유발하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진다. 즉, 접혀지면 하나이고 펼쳐지면 다(多)를 형성하는 오리가미의 폴딩은 서로 상반되는 펼침과 접힘이라는 운동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적인 운동방식을 보여준다. 하나로 접혀졌을 때에는 수많은 층이 서로 포개어져서 안과 밖이라는 구별이 상실되고 2차원적인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지만, 넓게 펼쳐지면 주름과 주름사이의 빈 공간이 주름과 합쳐져 3차원으로 부피와 크기가 확대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주름은 신체의 표면을 따라 뒤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집과 같은 형상으로 신체 위에서 수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착용되었을 때 신체의 공간과 외부 공간을 상호 소통시키고 있다.

오리가미 방식을 이용해 구성된 의복은 기존의 의복의 구성방식을 일탈해 봉제와 재단이 필요 없는 단일 시스템인 일체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것은 수직의 벌집 모양 형태로 인해 씨쓰루(see-through) 방식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내부

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씨쓰루 패션이 유리나 같은 투명성으로 신체의 형태와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오리가미가 보여주는 가시성은 정면에서 수직으로 놓여지는 부분들만 내부를 드러내고, 신체를 따라 다른 각도로 형성된 주름에서는 주름 내부의 벽면만을 드러내어, 보는 사람의 위치와 착용자 사이의 공간적, 시각적 위치에 따른 다양한 내부 투시의 가능성을 드러내었다. 즉 벌집과 같은 기하학적 입체형을 창조하는 오리가미 구성법은 인체의 굴곡과 움직임에 따라 펼쳐지는 공간이 달라지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내부공간도 달라진다.

〈사진 3〉은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2001 F/W 컬렉션이다. 이것은 나일론 오간자(organza)를 이용해 수백 개의 층을 만들어 복잡한 오리가미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신체의 굴곡에 따라 직물의 주름부분이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지며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상이한 형태의 파장이 형성된다. 각각의 폴딩은 파이와 같은 층을 형성하여 소프트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외관을 창조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섬세한 오리가미의 폴딩 기법과 벌집과 같은 물결무늬를 이용하여 형성된 과장된 형태, 복잡한 심과 닥트, 풍성한 직물로 특징 지워진다. 이것은 규칙적인 폴딩에 의해 내외부공간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주름과는 달리 신체와 외부 소통시키는 개방 형태의 다층적 입체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사진 4〉는 오리가미방식을 활용하여 윗 가슴 라인부분부터 헴 라인까지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어진 크고 과도한 입체적 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접혀지는 방식의 주름이 아니라 자체 공간을 창조하는 입체적 주름으로, 신체의 라인을 파괴하며 요동치는 주름은 의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조형물로써 인지되어진다. 이러한 주름은 기능적 측면이 아닌 감성적이고 미적인 욕구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접고 펼치는 과정에서 창조된 기하학적 조형체는 앞부분이 벌어져 있어서, 착용자가 걸을 때마다 주름 분량이 열리고 닫혀서 자유롭게 개폐되는 생물체의 입을 연상시킨다.

오리가미 방식을 이용한 의복은 착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착용자를 위압하듯 독자적인 조형미를 드러낸다. 이것은 접는 방식과 커팅 방식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의 구성이 가능하며, 건축과 같은 3차원적 입체감을 창조한다.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은 펼쳐진 주름의 내부와 외부가 빈 공간으로 연결되는 3차원적인 열린 공간을 형성하며, 펼쳐진 주름과 수직으로 세워진 면의 높이에 따라 신체를 과장하고 확장시키는 볼륨감을 창조한다.

3.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

패션디자이너들은 신체 주변을 패브릭으로 감싸는 폴딩(folding)의 반복 작업을 통해 가시적인 것(visible)과 비가시적인 것(invisible)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복의 형태와 기능사이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변화시켜 구조, 장식, 공간, 형태의 새로운 창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름은 면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접혀진 면에 의해 가장자리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가장자리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기도 하고 이들을 '구별'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의복에서의 주름은 작은 공간에 겹쳐지도록 구성되기도 하며 솔기로서 접혀지고 꺾매어지기도 한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접혀져 형성되어진 주름은 프렉탈 구조를 드러낸다. 프렉탈은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구조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주름 이론과 상통하는 것으로, 모든 사물은 그 안에 또 다른 사물을 내포하고 있다는 중첩 구조를 드러낸다. 펼침과 접힘에 의해 형성되어진 주름은 단순히 무한하게 계속되는 중첩 구조만을 뜻하지만, 부분속의 전체를 담고 있는 프렉탈은 단순한 중첩 구조 이상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같은 모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과는 다르며 하나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유사한 형태가 지속되는 리즘적인 변화와 차이의 생성을 의미한다. 매번 새로운 조각을 통해 형성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식의 조각을 무한히 반복해서 얻는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창조된다. 이것은 브루커리의 구조처럼 전체와

부분에 동시에 내재하는 유사성을 이용하여 부분이 곧 전체 형태가 되도록 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⁶⁾

프렉탈적 구조를 드러내는 불규칙한 주름은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나 반복성, 질서가 결여된 듯한 카오스적인 무질서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가 와해되었다는 의미의 무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많은 질서를 내재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성으로서의 무질서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양한 접속과 결합, 해체를 통해 무한한 형태변이를 가능케 하는 들뢰즈의 리즘적 사유를 드러내는 표현효과로서 기능한다.

〈사진 5〉는 티아 켈(Thea Bjerg)의 불규칙적인 주름에 의해 프렉탈 형태를 창조하는 코콘 토르소(Cocoon Torso)이다. 토르소를 형성하는 주름은 크기나 형태에 있어서 오리가미와 같은 균일한 모양의 반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이 불규칙한 폴딩을 따라 지속적으로 연속되며 반복되어진다. 이것은 접힘이라는 매우 간단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한 프렉탈 차원을 보여준다.

〈사진 6〉은 준야 와타나베의 불규칙한 주름을 이용한 작품으로 신체위에서 지그재그로 접히거나, 늘어진 스커트를 위쪽으로 끌어당겨 배 부분에 각각 다른 분량과 크기의 타원 형태의 주름을 형성함으로써 기능적이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획득하였다. 스커트에 형성된 사선의 주름과 불규칙하고 뻣뻣한 주름의 층위는 펼쳐짐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시각적인 확장과 역동성을 제공한다. 이것은 내부에 전체적인 구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프렉탈적 차원을 보여주며 무한하게 연장되어지는 중첩 구조의 부분적 인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구조를 지닌 스커트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착용자의 신체 위에서 형성되는 주름과 수직방향으로 드레이프 되어 형성되는 또 하나의 주름으로 인해 상이한 주름이 자유롭게 접속하는 불규칙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진다.

4. 드레이퍼리 방식에 의한 주름

드레이퍼리는 대부분 재단과 봉제를 하지 않은 긴 천을 몸에 둘러 늘어뜨리는 형태로써 옷감이 인

체에 붙지 않아 관대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며, 동작에 따라서 생기는 음영이나 수직선, 사선 등의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인해 우아하면서도 아름답다. 드레이퍼리에 의한 복식미의 정수는 고대 그리스 로마 복식을 통해 잘 드러나며, 현대 패션에서는 이러한 고전적 경향이 계승되어진 내추럴리즘이나 로맨틱한 감성의 표현을 위한 우아하고 글래머러스한 드레이퍼리, 이와는 상반된 과시나 부조화, 역설을 드러내는 역사적 절충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드레이퍼리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드레이퍼리에 의해 형성되어진 주름은 봉제에 의해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방식과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름은 신체위에 착용되었을 때에만 형성되어지는 수동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신체의 실루엣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형미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조형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한 장의 직물을 이용하던 기존의 드레이퍼리의 구성방식을 확장시켜 부분적인 구성요소나 장식적인 요소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패션 공간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3차원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7〉은 율리 텡(Yeohlee Teng)의 드레이퍼리를 이용한 미니멀한 원피스로서, 스커트 아랫부분의 좌우 헴 라인이 어깨와 연결되어진 끈에 의해 헴 라인의 절개선 부분으로 올려지면서 스커트 아래부분에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가 수평방향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8〉은 알렉산더 맥퀸의 프렉탈적 측면을 보여주는 과도한 드레이퍼리로 구성된 원피스이다. 몇 겹으로 구성되어진 각각의 드레이퍼리는 과도한 주름 분량으로 인해 조밀하게 구성되어지며, 바디스 부분에서는 신체의 사선 방향으로 놓이고 스커트 부분에서는 수직방향으로 놓여 착용자의 움직임 없이도 역동성과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것은 신체의 실루엣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진 7〉의 드레이퍼리와는 달리 신체 실루엣을 왜곡하고 오히려 신체를 은폐시켜 의복 자체의 조형성만을 부각시킨다.

제작 단계 시 주름의 형태와 분량이 결정되어지



〈사진 5〉 Thea Bjerg.,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 76.



〈사진 6〉 Junya Watanabe,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 216.



〈사진 7〉 Yeohlee Teng,
2006 S/S,
<http://www.firstview.com/>



〈사진 8〉 Alexander
MacQueen, 2006 F/W,
<http://www.firstview.com/>

는 크링클이나 오리가미 방식과 상이한 드레이퍼리에 의한 주름은 직물 자체의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공간 구성을 의도해야하므로 대부분 수작업에 의해 제작되어진다. 의복 구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용을 지양하는 셸리 팩스(Shally Fox)는 기계적으로는 제작할 수 없는 수공예적인 기술과 노동집약적인 구성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¹⁷⁾ 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커팅 방식을 선호하였고, 독특한 직물을 이용하여 드레이퍼리에 의해 주름을 구성한 다수의 의복을 제작하였다.

〈사진 9〉는 손으로 제작되어진 블라우스로서 이것은 많은 불규칙적인 러플로 표면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의복의 각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 유동적인 흐름으로 인지되어진다. 각각의 러플은 부착되어지는 위치와 직물의 분량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주름을 형성하며 신체를 따라 수직방향으로 드레이프 되어진다. 이것은 내부를 구조적으로 조밀하게 구성한 프렉탈 주름이나 주름의 크기나 형태가 고착되어진 크링클 방식이나 오리가미 방식과는 상이하게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드레이프되어지는 부분이 마치 파도와 같이 유동하며 주름의 형태와 굴곡이 변화된다.

드레이퍼리에 의한 주름을 이용해 기존의 구성방

식을 일탈하는 경향은 다음의 〈사진 10〉의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원피스에서 보여진다. 원피스는 앞부분 헴 라인의 길이가 조금씩 틀려 불규칙한 계단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여러 겹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비대칭적이고 유연한 드레이프는 신체를 따라 흘러내리고, 주름분량이 앞쪽으로 집중되어 마치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신체에 걸쳐보는 듯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주름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앞쪽으로 리드미컬하게 벌어지며 신체와 관계없이 의복 앞부분의 공간을 확장시킨다. 이것은 각 층마다 길이를 달리하며 내부에 형성되어지는 불규칙한 주름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각 주름의 무한하게 연결되어지는 중첩 구조와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드레이퍼리의 역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름부분의 헴 라인이 흰색의 바이어스 테입으로 처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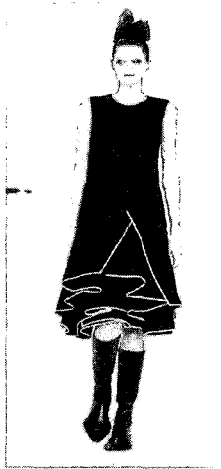
다음의 〈표 2〉는 크링클 방식, 오리가미 방식,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 드레이퍼리 방식의 주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비교, 고찰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특성 비교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	드레이퍼리 방식에 의한 주름
구성방식	-불규칙적인 구김과 열 조작 방식	-규칙적인 접기, 자르기, 펴기 방식	-불규칙적 반복적인 폴딩 방식	-늘어뜨리는 방식
구조	-반복적인 중첩 구조	-독립적인 중첩 구조	-불규칙적 중첩 구조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중첩 구조
의복공간	-규칙적 유동적 공간	-3차원적인 기하학적인 조형적 공간	-불규칙하고 조밀한 3차원적 공간	-불규칙하고 유동적인 3차원적 공간
특성	-기존 의복구성요소 일탈 -주름의 탄생 이용	-건축과 유사한 입체적 공간 형성 -신체를 과장하고 의복공간을 확장	-카오스적 무질서, 무의미 -리즘적 가변성을 드러냄	-착용방식과 움직임에 의한 가변성



〈사진 9〉 Shally Fox, 드레이퍼리 방식 주름, Techno Fashion, p. 172.



〈사진 10〉 Hussein Chalayan, Afterwords, 2000 F/W, Hussein Chalayan, p. 84.



〈사진 11〉 Yosiki Hishinuma, 2000 S/S, <http://firstview.com>



〈사진 12〉 Yosiki Hishinuma, 2000 S/S, <http://firstview.com>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

Ⅲ의 고찰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을 1. 확장성 2. 유동성 3. 탈구조성 4. 불규칙성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 확장성

확장은 크기와 관련된 시각적 의미와 넓이나 높

이 볼륨과 관련된 공간적 의미, 역할이나 용도와 관련된 기능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주름에서 나타난 확장성은 과장, 과시를 위한 의복 볼륨의 증대, 비가시적이던 내부공간이나 구조를 가시화시킨 시각적 확장, 2차원적인 의복의 표면에 입체성을 부여하고 표면적을 확대시키거나 다층적 구조를 형성한 공간적 확장으로 고찰되었다.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이나 접기 방식에 의한 불규칙한 프렉탈적 주름은 의복 볼륨을 증대시킨 시각적 확장과 의복표면을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입체공간으로 변화시킨 공간적 확장이 두드러졌

고,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과 드레이퍼리 방식에 의한 주름은 비가시적 부분을 가시화시킨 시각적 확장과 2차원적인 의복 표면을 개방적인 3차원적인 조형 구조로 입체화시킨 공간적 확장의 특징으로 고찰되었다.

특히 오리가미 방식은 신체 표면에 수직적인 별집모양의 구조를 형성하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상호 소통하는 개방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접고, 자르고, 펴는 방식을 통해 볼륨과 형태가 달라지며 착용 시 반복적인 입체패턴을 창조하였다. 즉 이것은 의복의 표면적을 확대하고 신체와의 접촉 부분에 빈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복의 공간을 확장시켰다. 오리가미 방식으로 구성된 의복은 개방된 공간을 통해 신체와 외부 환경이 소통되기도 하며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의복의 공간이 펼쳐지면 외부로 확장되어진다. 의복의 외부 공간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별집모양의 구멍이 넓어져서 내부의 신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이러한 구멍 크기의 변화는 신체의 굴곡,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사진 11〉은 요시키 히시누마(Yosiki Hishinuma)의 작품으로 오리가미 구성법으로 제작된 원피스를 보여준다. 이것은 각각이 신체의 표면 위와 수직을 이루며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벌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틈 사이로 신체가 드러나 보이는데 어깨위에서 자연스럽게 신체를 따라 밀착되는 플랫칼라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었고, 바디스 부위는 신체 위에 형성된 별집모양의 개방 정도에 따라 외부로 신장되어진다. 스커트의 헴 라인은 접혀지고 커팅되는 부분에 의해 불규칙하게 지그재그로 놓인다.

〈사진 12〉에서는 사선으로 길게 직물을 분할하여 사이사이에 주름이 잡혀진 크링클 직물을 배치함으로써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두 개의 상이한 공간을 가지는 의복을 창조하였다. 특히 주름이 펼쳐져 확장되어진 사선의 조각들은 비치는 천으로 제작되어 의복 내부에 존재하는 착용자의 신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평면과 입체로 구성된 의복 자체의 2개의 상이한 공간을 내부의 신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3개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이것은 또한 신체

의 실루엣과는 상관없는 사선의 볼륨감 있는 조각으로 인해 신체와 의복 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입체적인 조형미를 창조하였다.

2. 유동성

주름의 펼침은 '열림'을 의미하며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 지움'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와 타자를 가르던 불연속이 허물어지고 공현존하는 연속의 차원으로 이행됨을 의미한다. 주름은 기본적으로 접혀지는 불연속적인 특이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속과 불연속을 동시에 드러내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피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다양성의 공간을 창조하는 유동적 공간이다.

3차원적인 유동적 공간을 창조하는 주름은 접고 펼침이라는 단순한 시스템의 반복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유용한 구성적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의 면과 공간을 각기 다른 층위로 변화시키는 '접힌 선'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 윗면과 아랫면의 위계로 분할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의 우위에 있거나 구속하는 위계 질서에 근거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분할된 각 부위는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상호 자유롭게 유동되어진다.

요시키 히시누마는 다른 일본 디자이너들처럼 경제적으로 다층적 공간을 창조하는 주름에 매혹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주름기법을 개발하여 이를 의복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가 규칙적인 작은 주름을 이용해 닥트와 같은 구성선의 도움 없이 의복을 유동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면, 요시키 히시누마는 이세이 미야케와는 다른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을 활용하였다. 오리가미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주름의 창조는 2000년도 컬렉션에서 두드러졌는데, 그는 여기에서 과도하거나 불규칙하고 의복의 기능적, 구성적 효용성과는 상관없는 아방가르드한 주름을 창조하였다.

〈사진 11〉은 요시키 히시누마의 2000년도 컬렉션으로 그는 한 장의 직물을 오리가미 방식으로 접고 자르고 펼쳐서 사진과 같은 형태의 조형미를 창조하였다. 신체의 볼륨 부분인 가슴과 힙 부분에서는

벌집 형태의 조형체가 많이 벌어지고 오목부분인 허리부위에서는 덜 벌어지며 신체 라인에 따라 외부 공간과 소통하는 면적을 달리한다. 이것은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독립적인 조형적 공간을 창조하여 신체의 실루엣을 은폐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성 신체의 가장 에로틱한 부위인 가슴과 힙이 벌어진 틈으로 두드러져 보이며 강조되기 때문에 에로틱한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사진 13〉의 와타나베의 의복은 상의는 꼬임에 의해 네크라인 부분이 피비우스 띠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하의는 한 장의 긴 천을 사용하여 이리 저리 접어서 햄 라인이 지그재그로 드레이프지며 불규칙하게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접혀진 직물은 앞부분의 스커트에서 여러 층을 이루며 겹쳐지고 드레이프되어 스커트의 외부 장식으로 기능하는데, 연결되어 여러 겹으로 구성된 스커트는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펼쳐지고 벌어져서 의복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 기계적인 접힘에 의한 고정적인 주름이 아닌 드레이퍼리에 의한 자유롭고 우연한 구부러짐에 의해 생성된 스커트 주름은 다양한 힘의 구조를 지닌 다층적 공간을 창조하였으며 각 공간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이면서 여럿인 의복공간을 형성시켰다.

3. 탈구조성

2차원적 평면인 의복 공간을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주름은 반영구적인 기계적 주름이 가진 탄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의복구성요소를 해체하고 단순화시켰다. 신체의 실루엣을 따라 편안하게 밀착되는 주름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어진 접음선에 의해 기존의 주름이 꺾여 들어가면서 새로운 레이어를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던 의복구성방식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탈구조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또한 오리가마 방식에 의한 주름이나 접기 방식에 의한 불규칙한 프렉탈적 주름은 신체의 실루엣을 은폐하고 외부로 확장되어진 독립적 조형 공간으로 인해 신체 이미지를 과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신체부위에 따라 세분화되던 전통적인 의복구성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화된 입체적 조형 공간을 구성하여 신체에 착장시킴으로써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세밀하고 정교한 조합에 의해 형성되던 기존의 구성방식을 해체하고 일탈하는 탈구조적인 조형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탈구조성은 의복형태 창조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의복 공간을 차이와 변화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시뮬라크르(simulacre) 공간으로 확대시킨다.¹⁶⁾

준야 와타나베는 신체를 구속하고 신체와 의복사이의 고정된 공간관계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의복구성 방식인 정밀한 테일러링 기법에서 벗어나고자 지속적인 탐구를 하였다. 그는 의복에서의 새로운 구성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단순한 폴딩 기법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사진 13〉의 의복은 기존의 스커트의 구성방식을 일탈하여 직물을 지그재그로 접어서 다층적 공간을 창조한 비대칭적인 스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구성선 없이 단지 우연에 의한 직물의 폴딩 작업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선으로 접혀지는 직물은 접혀지는 특이면을 따라 내부가 외부로 변하고 외부가 내부에 감춰지면서 내외부 공간구조의 위계를 일탈하고 있다. 이것은 규칙적인 주름에 의해 형성되던 동일한 형태의 다층구조와는 달리 각 부분이 다른 공간과 층위를 형성하며, 이러한 공간은 직물의 폴딩 방식을 달리하면 또 다른 공간으로 즉각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구조나 위계를 가지지 않는다.

〈사진 14〉는 후세인 살라얀의 1999년도 컬렉션으로 독특한 형태와 프렉탈적인 구조의 직물을 창조하기 위해 베일(veil)용의 얇은 실크 그물인 툴(tulle)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의복 공간을 빈틈없이 조밀하게 구성하는 구조적인 방식을 이용해 툴을 촘촘히 접어 복잡하고 흐르는 듯한 파동으로 형성된 표면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원피스는 접혀진 툴의 길이로 인해 볼륨이 외부로 확장되어지며 의복 내부에 놓여지는 신체의 실루엣을 왜곡한다. 이것은 유기적인 흐름으로 파동치는 프렉탈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세인 살라얀은 이 작품을 통해 관습적인 커팅과 전통적인 프로포션을 일탈하



〈사진 13〉 Junya Watanabe,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 216.



〈사진 14〉 Hussein Chalayan, *Afterwords*, 2000 F/W, Hussein Chalayan, p. 87.



〈사진 15〉 Issey Miyake, 1999 S/S, <http://firstview.com>



〈사진 16〉 Hussein Chalayan, *ventriloquy*, 2001 F/W, Hussein Chalayan, p. 97.

고, 신체의 윤곽선을 그리거나 수직적인 축을 기초로 의복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범을 배제하였다. 이것은 모델의 팔과 다리, 목 부위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신체 주위를 따라 망사용 톨로 빈틈없이 조밀하게 구성하여 뻣뻣하면서 밀도 높은 실루엣으로 조각되었다.

4. 불규칙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혀지고 굴곡 되어 형성된 프렉탈적 주름은 내재된 규칙적인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고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카오스 상태를 드러낸다. 이것은 각 의상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속하거나 결합,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된 구조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열림 구조는 다양한 생성을 가능케 하는 창조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의복구성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주름이나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구성조각을 해체한 새로운 부분들과의 이질적인 결합은 대칭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의복구조의 경계를 해체하여 새로운 구성방식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불규칙한 조각과 주름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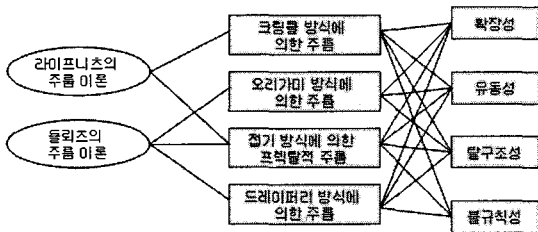
하는 역동성을 드러내며 착용자의 신체를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다층구조와 단일구조 사이의 시각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의복구성에 있어서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과정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 상호 이질적인 부분들과 주름과의 불규칙한 결합은 새로운 조형적 공간으로서의 의복 기능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5〉는 이세이 미야케의 1999년도 작품으로 직물을 무작위로 접고 가운데 부분을 뜨거운 열로 압착시켜 특정 형태를 지향하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주름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착용자의 신체위에서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접혀지고 눌러지기 때문에 신체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왜곡하고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체에 의거하여 제작되던 기존의 의복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해체하고, 불규칙한 주름과 열 압착만으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탈구조적 의복을 창조하였다.

후세인 살라얀은 2001 S/S collection에서 ‘파피 드레스(puppy dress)’를 디자인하였는데〈사진 16〉, 여기에서 살라얀은 많은 요소들을 불규칙하게 구성되어진 의복에 결합시켰고 신체 면과 스커트의 연속적인 주름을 겹쳐서 연결시켰다. 몸통과 어깨부위는 이들을 연결시키는 격자무늬의 패턴이 있는 패

브릭을 이용하였고, 드레스 앞의 일부분은 프린트된 무늬가 아닌 실제 양귀비꽃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여 양귀비 받을 연상시켰다. 기존의 조형적 구성조각을 일탈한 새로운 조각들의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조각들은 선명한 붉은 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이들 사이의 불규칙한 결합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있다. 연속적인 주름의 흐름과 패턴의 연결, 가장자리의 꽃 장식은 신체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이들 패턴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제공한다.

다음의 <그림 3>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주름 구성방식과 주름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구성방식과 조형적 특성과의 관계

V. 요약 및 결론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주름은 패션 공간에 무수히 많은 다른 부분을 담고 있는 '접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접힘은 접힌 면을 중심으로 두 개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연속의 계기와 불연속의 계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를 창조한다. 이러한 주름의 특성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점차 그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패션에서 주름을 이용한 구성방식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의 새로운 구조와 형태를 탐색하기 위해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형태와 공간을 창조하며 더불어 의복구성방식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주름의 특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때의 주름은

공간적 구조의 접힘과 펼침에 의한 3차원적인 '주름'으로, 접힌 면을 중심으로 연속과 불연속을 동시에 드러내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내부와 외부가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다양성이 내재된 공간창조에 기여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을 구성방식에 따라 크게 크링클 방식, 오리가미 방식,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 드레이퍼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크링클 방식에 의해 형성된 주름은 움직임에 의한 릴리프 효과로 리듬감과 함께 의복의 표면적을 외부로 확장시키며,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밀집된 주름은 역동적인 선의 흐름을 강조하며, 빛의 각도에 따라 상이한 색채를 반사하며 독특한 질감을 창조한다.
2.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은 접혀지면 하나이고 펼쳐지면 다(多)를 형성하며 서로 상반되는 펼침과 접힘이라는 운동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발생하는 종합적인 운동 방식을 보여준다.
3.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은 무한하게 계속되는 중첩 구조이지만 같은 모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과는 다르며, 하나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유사한 형태가 지속되는 리즘적인 변화와 차이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번 새로운 조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식의 조각을 무한히 반복해서 얻는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창조된다.
4. 드레이퍼리에 의한 주름은 봉제에 의해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물 자체의 역동적이고 불규칙한 공간을 구성하며 착용 방식과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신체와 관련되어진 수동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신체의 실루엣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형미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조형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위의 방식으로 창조되어진 주름은 여러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크게 확장성, 유동성,

탈구조성, 불규칙성의 네 가지 특성으로 고찰되었다.

1. 확장성은 과장, 과시를 위한 의복 볼륨의 증대, 비가시적이던 내부 공간이나 구조를 가시화시킨 시각적 확장, 2차원적인 의복의 표면에 입체성을 부여하고 표면적을 확대시키거나 다층적 구조를 형성한 공간적 확장으로 고찰되었다.
2. 주름은 기본적으로 접혀지는 불연속적인 특이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속과 불연속의 계기를 동시에 드러내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다양성의 공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의 면과 공간을 각기 다른 층위로 변화시키는 '접힌 선'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 윗면과 아랫면의 위계로 분할되지만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각 부분이 상호 자유롭게 유동되어진다.
3. 2차원적 평면인 의복 공간을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주름은 반영구적인 기계적 주름이 가진 탄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의복구성요소를 해체하고 단순화시켰다. 이것은 폴딩에 의해 새로운 레이어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던 의복의 구성조각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탈구조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4. 모든 것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고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카오스 상태를 드러내는 주름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속하거나 결합,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된 구조를 상기시키며 다양한 생성을 가능케 하는 창조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불규칙한 주름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지향하는 역동성을 드러내며 착용자의 신체를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다층구조와 단일구조 사이의 시각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의복구성에 있어서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과정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

접힘에 의해 2차원적인 표면을 3차원적으로 복잡하게 계열화시키는 주름은 내외부로 분리되는 의복

공간 상호간의 차이와 모순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차이'와 '접목'을 동시에 사유하게 한다. 또한 접힘이나 구부러짐과 같은 특이면을 통해 상이한 계열들을 서로 하이퍼링크적으로 연결시키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따라서 주름은 결합되어진 상이한 요소들의 관계를 고착화하거나 확정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유동시키는 탈경계적이고 개방적인 열린 개념이다.

본 연구는 공간을 확장시키고, 내외부 공간을 상호 관입시키며 결과적으로 유동적 공간으로 패션 공간을 변화시키는 주름의 효용성을 드러냄으로써 새롭고 역동적인 패션 공간 창조에 주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Bradley Quinn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Y: Berg.
이봉덕, 양숙희 (2001). 파코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9(1), pp. 141-153.
양희영, 양숙희 (2006).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공간구성 방식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복식*, 56(7), pp. 85-100.
- 2) 문인숙, 오춘자 (1993).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회화 작품에 나타난 드레이퍼리 복식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6, pp. 67-88.
임상임 (1999). 고대 그리스 남인들의 복식 연구. *생활자원개발연구*, 1, pp. 132-156.
임상임, 추미경 (2001). 고대로마 신화에 등장한 신들의 복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945-956.
박명희 (1990). 이세이 미야케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학회지*, 28(1), pp. 45-67.
이정후, 양숙희 (1997).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선미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1980년대 이후 레이 가와쿠보와 이세이 미야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7), pp. 78-89.
윤은재 (2003). 일본인 디자이너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학회지*, 41(8), pp. 118-132.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철학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 161-173.
- 3) 최현주 (1997). 세르의 소통이론과 객관적 실험의 발생 -플라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해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4-47.
- 4) 이정우 (2000). *접힘과 펼쳐짐*. 서울: 거름, pp. 98-100.
- 5) 이정우 (2000). *앞의 책*, pp.98-99. 그림 1, 2 재인용.
- 6) 정익순 (2002). 들뢰즈 철학에 나타난 성과 신체의 문

- 제. 철학탐구, 16, p. 195.
- 7) 들뢰즈의 이중 인과, 즉 준 인과는 스토아적 사유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스토아적 인과론의 특징은 물질적인 대상을 모두 원인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대상들 사이의 운동에 의해 파생된 비물체적인 효과를 결과로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던진 돌과 깨진 유리는 원인이며 우리가 깨어진 사건, 비물질적인 효과가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돌이나 유리와 같은 각각의 물질들은 서로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만 비물질적인 사건 사이에는 준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들뢰즈는 이를 바탕으로 필연과 우연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연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 자체라면, 세계가 우연적으로 생성될 때만 이러한 생성은 원리에 따른 생성이므로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이 긍정되는 전체하에서 필연은 우연에 의해 긍정되게 된다. 이것은 들뢰즈의 생성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정한 법칙인 필연에 의해 생성된 것은 그러한 원리에 따라야만 생성자체가 인정되는 편협하고 중심지향적인 사유이지만, 우연 자체를 세상의 원리로 파악하고 우연에 의한 생성을 긍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생성을 긍정하는 탈영토적이고 탈경계적인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 서동욱 (2000).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65-68.
 - 8) 김상환 (1996). 해체론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20.
 - 9) Michael Hardt, Gilles Deleuze (1996). 들뢰즈의 철학사상. 이성민, 서창현 역. 서울: 갈무리, pp. 141-147.
 - 10) 유희진 (2000).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건축에 있어 인간성 상실과 회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5.
 - 11) 이희남 (1996). 패션에 표현된 크링클(Crinkle)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30, p. 170.
 - 12) 릴리프(relief): 평평하게 표현된 점에서는 회화에 가까우나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점에서 조각의 일종이다. 회화처럼 한 방향에서 보는 것이지만 환조(丸彫)의 조각과 같이 입체감으로써 그 진가를 찾아 내는 부조이다.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검색일: 2006년 8월 18일.
 - 13) 들뢰즈가 제안한 부드러운 혼합은 유연성과 융통성을 지니며 형태적인 특징은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더 점성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상이한 요소 상호간의 충돌보다는 결합을 강조하며 비관계적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박정남 (2002). 시대적 변천에 따른 유동적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14) 김미성, 배수정 (2003).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철학을 통해 나타나.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 164.
 - 15) 양희영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베르그송과 들뢰즈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0-22.
 - 16) Bradley Quinn (2002). *Techno fashion*. NY: Berg, p. 172.
 - 17) 들뢰즈는 신체나 의복을 변화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표현되는 표면효과라 하였고 이를 현실에서의 시뮬라크르 공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가상 현실로서의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건과 차이가 생성되는 실제 창조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희영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베르그송과 들뢰즈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4-65, 97.
 - 18) Bradley Quinn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Y: Berg, p. 217.
 - 19) Caroline Evans, Suzy menkes, Ted Polhemus, Bradley Quinn (2005). *Hussein chalayan*. Groninger Museum: Nai Publisher.
 - 20) Yuniya, Kawamura (2004). *The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New York: Berg.
 - 21) 최연옥 (2003). 들뢰즈의 감각의 존재론-생성으로서의 예술.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검색일 : 2006년 9월 13일.